

【논문】

「악기」에서 악과 감정의 밀접성이 이끌어 낸 예악의 대비와 악 제정자의 중요성*

조 정 은

【주제분류】 중국고대철학, 음악론

【주요어】 「악기」, 「악론」, 예, 악, 감정, 악 제정자

【요약문】 이 글은 「악기」 도입부 및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과 「악기」의 상응 부분을 분석하여, 「악기」가 악과 감정의 밀접성을 주목하며 예악의 대비와 악 제정자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한다. 악의 영향력을 주로 행동 차원에서 말하는 「악론」과 달리 「악기」는 악의 영향력을 감정에 한정시켜 서술하는 경향이 짙다. 악이 내면과 연결되는 성격이 강해지며 외적 행동을 향하는 예와 대비가 이뤄지면서, 악은 예에 부속된 개념에서 벗어나 대등한 짝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예악의 대비는 예악이 땅과 하늘, 수렴성과 발산성 등에 대응하는 데까지 확장되는데, 악대와 무용을 포함하는 악의 전체 구성은 자연계에 유비되며 이러한 우주적 차원의 예악론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악과 감정의 밀접성은 「악기」에서 악 제정자의 역할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악 제정자의 내면 성향이 음을 매개로 악 수용자에게 전달되면서 악 제정자는 악이 지닌 영향력의 근원이 된다.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이 글은 『예기』 「악기」의 도입부, 그리고 『순자』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이 「악기」에 수용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악기」의 악(樂) 개념이 지니는 특징을 「악론」과 비교하여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악기」 도입부를 분석하여 「악기」의 악 및 예악 개념이 지니는 특징을 추론하고,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과 「악기」의 상응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추론을 뒷받침하면서 「악기」 악 개념의 특징을 지적할 것이다.

「악기」에서 악이 예와 자주 병칭되는 만큼 악은 예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악 개념의 특징을 「악론」과 비교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악 개념을 두 문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야 한다. 「악론」도 비록 적은 횟수일망정 몇 차례에 걸쳐 예악을 함께 말하는데, 이 부분이 「악기」에 수용되며 논의가 확대되고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서 두 문헌이 예악을 달리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¹⁾ 이러한 차이는 악을 인식하는 차이로 직결되므로 「악론」과 비교하며 「악기」의 악 개념이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악론」의 예악 등장 부분과 「악기」의 상응 부분은 좋은 분석 대상이 된다.

「악기」는 「악론」의 예악론을 이어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즉, 「악론」이 제기한 예가 지향하는 구분된 질서와 악이 지향하는 통합된 조화라는 상보적 대비성을 「악기」가 수용하면서도 이를 천지(天地)에 대응시켜 논의를 확장했다는 평가이다.²⁾ 「악론」과 「악기」의 예악론이 관련 있으며 천지 차원의 예악관이 「악기」의 특징적 시각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³⁾ 「악기」가 예악론을 심화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문헌이 악에 대해 주목할 만한 시각차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가정 아래, 두 문헌 사이 상관성이 높은 부분을

1) 「악기」는 악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하기 때문에 예악 역시 여러 층차에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악기」에서 「악론」과 유사한 예악관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악기」가 새롭게 제기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2) 이상은, 「순자 「악론」의 특징과 영향」, 223-225쪽.

3) 이 글은 「악론」에서 예악의 상보적 대비성이 약하다는 입장에 있다. 기존 해석에서는 「악론」과 「악기」의 예악론이 상관성을 지닌다는 것까지만 수용한다.

분석함으로써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악기」가 「악론」의 세 배가 넘는 분량이지만 단지 분량만을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예악에 관한 논의가 훨씬 풍부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론」에는 예악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악기」의 예악론을 「악론」의 계승이란 시각에서만 평가하기가 적연치 않다.⁴⁾ 더군다나 「악기」에서 예악에 관한 내용은 천지에 대응하는 예악 등 대부분 「악론」에는 없는 새로운 시각이고,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은 「악기」에서 예에 관한 내용이 탈락된 채 악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되고는 한다.⁵⁾ 이는 「악기」의 악 개념 그리고 이와 연결된 예악 개념이 「악론」의 계승보다는 「악론」과 다른 새로운 시각이라는 의의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악기」와 「악론」의 유사성 못지않게 차별성도 중요할 수 있음은 겹치는 부분의 배치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악기」와 「악론」은 겹치는 부분 때문에 유사성이 두드러진다.⁶⁾ 하지만 분량이 아닌 구조에서 접근하면 유사성은 약해진다. 즉, 겹치는 부분의 60%가 넘는 분량이 「악론」에서는 시작 부분에 해당하지만 「악기」의 상응 부분은 뒤에 놓인다. 이 부분은 예악이 아닌 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두 문헌의 차이로 「악론」에는 목자를 비난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 「악기」에는 없고, 이외에도 한 부분이 탈락하거나⁷⁾ 몇몇 글자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논의 전개에 중요한 차

4) 『순자』의 다른 열한 편에도 ‘예악’이 약 14개 문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중 다섯은 시서예악 형태로 등장하여 예악의 독립성이 약하다. 예악의 대비는 「신도」의 “恭敬，禮也，調和，樂也。”와 「대략」의 “審節而不知，不成禮，和而不發，不成樂。”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예는 절제성을 지닌 공경, 악은 발산성을 지닌 조화와 연결되어 이 글에서 살필 「악기」에 나타난 예악의 대비와 통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순자』 전체는 물론이고 「악론」에서도 예악의 대비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악기」 예악관이 「악론」 및 앞서 말한 편들의 용례와 유사성이 있지만, 예악의 대비가 훨씬 뚜렷해지는 데에 「악기」의 특징적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입장에서 이를 살필 것이다.

5) 한 부분은 「악기」에도 여전히 예악으로 나온다. 이 부분은 III.3에서 다룬다.

6) 「악론」은 약 1600자인데 이 중 35%에 해당하는 560자에 달하는 부분이 「악기」에 유사한 형태로 나온다. 「악기」는 약 5200자이다.

7) 이 탈락된 부분은 III.1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외에도 “足以率一道，足以治萬變”이 「악기」에서 “所以合和父子君臣，附親萬民也”로 바뀐다. 이들 구절 바로 앞 내용이 종묘, 규문, 향리 등에서 악을 연주하면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어서 만 가지 변화를 말하는 「악론」은 논의가 갑자기 확대되는 감이 있다. 부자, 군신, 만민을 말하

이는 거의 없어서 다른 겹치는 부분에서 「악기」가 「악론」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두에 놓인 만큼 이 부분은 악에 대한 「악론」의 중요한 관점을 보여 줄 텐데도, 「악기」가 단순 차용한 인상이 짙은 데다가 후반부에 놓이기까지 하여 「악기」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을 이유로 유사성만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예·악·정령·형벌[禮樂政刑]의 기능으로 일단락 짓는 서두 논의는 「악기」가 악 및 예악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 줄 수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분석하고,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이 「악기」에 수용되는 양상을 살펴 두 문헌의 시각차를 지적하겠다. 「악론」의 예악 서술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것이다. 하나는 「악기」에 수용되지 않는 180자 정도에 이르는 분량이다. 이 부분이 「악기」에 실리지 않은 것을 단서로 두 문헌의 악에 대한 시각차에 접근할 것이다. 다음은 「악론」의 400여 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악기」에서 950여 자로 늘어난다. 변화된 양상을 살펴면서 「악기」악 개념에 대해 논할 것이다.⁸⁾

이 글은 「악기」의 예악론 중 「악론」과 상관성이 높은 부분이 주요 분석 대상이라서 예악을 천지와 함께 논하며 「악기」의 고유한 예악관을 펼치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악기」의 고유한 예악관을 탐색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악 개념의 특징을 「악론」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드러낸다는 의의를 지닌다.

II. 「악기」 도입부: 악과 감정의 밀접성

「악론」과 「악기」 모두 악과 감정의 밀접성을 말한다. 하지만 「악론」은

는 「악기」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8) 이 밖에도 「악기」가 후반부에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 「악론」 도입부 끝머리에도 예악이 나온다. 「악기」에서 而 대신 則을 쓰고, 故의 위치를 바꾸고, 者를 붙이는 등 변화가 있어서 논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어서 「악기」와 「악론」의 시각차를 반영한 논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악의 영향력을 옹호하는 데에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악은 즐거움이다[樂者樂也]”라는 말로 서두를 여는 만큼 「악론」은 감정 특히 즐거움이란 감정이 악과 관련 깊다고 본다. 하지만 곧 방향을 바꾸어 즐거움의 표현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악을 제정했다고 한다. 이때 「악론」은 악이 즐거움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즐거움의 표현을 제약하는 악을 말하는 무리수를 둔다.⁹⁾ 그리고 나아가 인간 행위를 바르게 이끄는 힘을 악에 부여한다. 이 도덕적 힘은 백성의 올바른 행동뿐 아니라 강한 군사력까지 이끌어 낸다.¹⁰⁾ 논의가 이쯤 오면 애초 즐거움을 말한 것이 무색해지기까지 한다. 이와 달리 「악기」는 악의 영향력과 관련해 감정을 주목한다.

「악기」는 음(音)이 사람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로 시작한 후 마음으로부터 소리[聲], 음, 악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즉,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움직임인 감정은 소리로 표현된다.¹¹⁾ 소리가 뒤따라 가락이 변하면서 특정 형식을 이룬 것이 음이다. 여기에 악기 연주와 무용까지 더하면 악이 된다. 악이 음에서 생긴 만큼 악은 결국 마음이 외부 자극에 감응한 결과물이라면서 악이 감정의 표현물임을 지적한 후, 슬픈 감정이 표현된 소리는 촉박하고 잣아든다는 등 감정과 소리 사이 여러 대응을 서술한다. 다음으로 예는 뜻을 인도하고, 악은 소리를 조화시키고, 정령은 행동을 하나 되게 하고,¹²⁾ 형벌은 나쁜 행동을 막는데, 이들의 공통 목표는 민심을 갈게 하여 다스림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¹³⁾

9) 박낙규는 즐거움을 표현한 결과인 음악과 즐거움을 통어하는 음악이라는 상충된 시각이 「악론」에서 전개된다고 한다. 박낙규, 『『순자: 악론』의 예술사상사적 의미』, 246-247쪽.

10) 「악론」樂肅莊則民齊而不亂，民和齊則兵勁城固，敵國不敢嬰也。

11) 주석13의 원문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감정’이라는 구절이 없다. ‘감정’은 주석13 원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凡音者，生人心者也。情動於中，故形於聲”에서 情을 해석한 것이다.

12) 王夢鷗(1907-2002)는 政을 금지를 정한 명령으로 해석한다. 금지를 통해 행동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왕몽구, 『예기금주금역』, 608쪽.

13) 「악기」凡音之起，由人心生也。人心之動，物使之然也。感於物而動，故形於聲。聲相應，故生變，變成方，謂之音。比音而樂之，及于戚羽旄，謂之樂。樂者，音之所由生也，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是故其哀心感者，其聲噍以殺。其樂心感者，其聲嗶以綏。其喜心感者，其聲發以散。其怒心感者，其聲粗以厲。其敬心感者，其聲直以廉。其愛心感者，其聲和以柔。六者非性也，感於物而后動。是故先王慎所以感之者。故禮以道其志，樂以和其聲，政以一其行，刑以防其姦。禮樂刑政，其極一也，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

「악기」 도입부에서 마음은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악과 마음이 밀접하다는 것은 곧 악과 감정이 밀접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악기」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음이 악을 구성하지만 악대와 무용까지 추가해야 비로소 악이 되고, 악의 정체성은 바로 이 추가 요소가 확립해 줄 텐데도 「악기」는 여전히 음이 감정의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악과 감정이 밀접하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예·정령·형벌과 함께 묶이는 악이라면 국가 제도의 성격이 짙어 보여서 악의 유래로 감정을 우선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도 「악기」는 첫머리부터 이를 지적하고 나선다. 음은 못사람도 알 수 있지만 악은 군자만 안다고 하여¹⁴⁾ 음과 악을 구분하면서도 음을 통해 악과 감정의 밀접성을 확보하는 것은 「악기」의 악 개념이 지닌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악기」가 악이 감정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악이 감정 발생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악기」는 다양한 감정에 따른 각양각색의 소리를 서술한 후, 이러한 소리는 자극이 주어져서 나온 것이므로 선왕은 자극을 느끼게 하는 데에 신중했다고 말한다. 이렇다면 악은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일 터라 “악이 소리를 조화시킨다”고 할 때 조화로운 소리는 악이 발생시킨 감정이 조화롭게 표현된 것으로 풀 수 있다. 비록 처음 논의는 ‘감정→소리→음→악’으로 진행하여 악의 발생을 다루지만, 이어서 ‘악→감정’으로 진행하여 악과 감정의 관계가 역전된다. 결국, 「악기」가 첫머리에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치 제도 중 하나인 악이 감정에서 유래한다는 것으로, 악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주장은 감정을 일으키는 악의 효과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악이 감정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라면 예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행동 양식이 되어 악과 예는 대비된다. 「악기」 도입부에서 “예가 뜻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예라는 행동 양식이¹⁵⁾ 내면의

14) 「악기」知音而不知樂者，衆庶是也。唯君子爲能知樂。

15) 예의 의미 영역이 넓은 만큼 「악기」에 나오는 예를 본문의 정의대로만 볼 수는 없다. ‘보이다’를 뜻하는 示, ‘제기’를 뜻하는 豊로 된 글자 구성과 “예는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을 섬기고 복을 구한다. 禮履也，所以事神致福也。”라는 『설문해자』의 뜻풀이는 예가 본래 종교 의식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보여 주지만 이러한 초기 의미는 점차

도덕적 지향을 바르게 이끄는 것으로 풀 수 있다.¹⁶⁾ 이 경우에 예도 행위를 거쳐 마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일차적 영향력이 행위를 향한다는 점에서 예와 악은 외면과 내면으로 대비된다. “악은 마음속에서 나오고, 예는 밖에서 만들어진다.”라는¹⁷⁾ 구절도 이런 측면을 보여 준다. 예악은 수렴과 발산으로도 대비된다. 예는 행동이 적절한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수렴성을 지닌다면 악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발산성을 지닌다. 이는 “예는 덜어냄을 주로 하고, 악은 채움을 주로 한다.”라는¹⁸⁾ 구절에도 나타난다.

「악기」에서 악은 예와 대비되는 성격이 강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효과가 중요하다. 이 효과를 옹호하기 위해 악은 비록 음과 차별화되면서도 음을 통해 감정과 연결된다. 하지만 감정의 표현물이 음이라고 하여 음이 감정에

확대된다. 예를 들어 胡適(1891-1962)은 예의 뜻이 1) 종교 의식, 2) 관습과 풍속으로 승인된 일체 규범, 3) 행위의 모범이 되는 마땅한 이치로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규범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한다. 胡適, 『中國古代哲學史』, 133쪽. 「악기」에도 “대향의 예[大饗之禮]”처럼 예를 초기 의미로 쓴 경우도 있지만, 예악이 대비될 때 예는 같은 [同]에 대비되는 다름[異], 마음속[中/內]에 대비되는 밖[外], 조화[和]에 대비되는 구분[節/序], 마음 다스림[治心]에 대비되는 몸 다스림[治躬]과 연결되기 때문에 호적이 말한 두 번째 단계의 뜻과 유사한 특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반면 「악론」에서 예는 첫 번째 뜻의 영향이 짙은 가운데 두 번째로 이행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16) 핑가레트는 *Confucius: the Secular as Sacred*에서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서 예 수행이 갖는 신묘한 힘을 지적한다. 예의 본질이 내면의 도덕성이 아니라 외적 행동이라는 것을 핑가레트의 주장이 지지해 준다고 해석하면서 정창수는 예가 “조절된 행동을 통해 개인들에게 균형 잡힌 감정과 내면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행한다고 말한다. 정창수, 『예의 본질과 기능: 『예기』의 사회학적 서설』, 236-255쪽. 『논어』의 “繪事後素”를 “그리는 일이 있는 후에야 순수함이 살아난다” 즉, 예를 행함으로써 본 바탕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해석한 이수태의 해석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이수태, 『새번역 논어』, 70-71, 282쪽.

17) 「악기」 樂由中出, 禮自外作.

18) 「악기」 禮主其減, 樂主其盈. 이외에도 악을 생명이 자라나는 봄과 여름에, 예를 생명을 거두고 저장하는 가을과 겨울에 연결하는 것, 예악을 땅과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도 비슷한 예이다. 「악기」 春作夏長, 仁也. 秋斂冬藏, 義也. 仁近於樂, 義近於禮; 樂由天作, 禮以地制. 하지만 악의 발산성이 일관된 시각은 아니다. 주석 17 원문 바로 다음 구절은 악이 마음속에서 나와 고요하다는 것인데(樂由中出故靜), 이는 악의 발산성에 반한다. 마음의 고요함을 증시하는 도가 계열 사상의 영향인 듯도 싶어 악이 여러 사상의 영향 아래 인식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곧바로 확보되지는 않는다.¹⁹⁾ 더군다나 음은 악의 일부 요소라 감정 발생 효과만이라면 악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러한 문제를 「악기」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Ⅲ. 「악론」의 예악 서술 부분과 「악기」의 상응 부분 비교

1. 도덕적 행동보다는 감정을 유발하는 악

예악을 언급하는 「악론」의 한 부분은 「악기」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깊고 빨라서 올바른 악이라면 백성을 옳은 길로 이끌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렇지 않은 악이라면 반대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악이 무너져 사악한 음이 생기면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모욕을 받게 되므로 성왕께서 예악을 귀히 여겼다고 한다.²⁰⁾ 이 부분은 나라의 치란을 결정 지을 백성의 행동에 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보여 준다. 하지만 글을 맺으며 악이 아닌 예악을 말하여 악과 예악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즉, 예가 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인상을 준다.

예악은 『논어』에서 개념적 중요성을 얻는다. 『좌전』에도 예악이 등장하지만 세 번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이 세 번 모두 자애(慈愛) 혹은 시서(詩書)와 함께 나와서 예악의 개념적 독립성이 약하다.²¹⁾ 『논어』는 다섯 문장

19) 박낙규는 후쿠나가를 인용하며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이유로 소리가 일정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낙규, 「고대 중국의 유가와 도가 악론의 기본 관점(상)」, 74쪽.

20) 「악론」 夫聲樂之入人也深，其化人也速，故先王謹爲之文。樂中平則民和而不流，樂肅莊則民齊而不亂。民和齊則兵勁城固，敵國不敢嬰也。如是，則百姓莫不安其處，樂其鄉，以至足其上矣。然後名聲於是白，光輝於是大，四海之民，莫不願得以爲師。是王者之始也。樂姚冶以險，則民流僂鄙賤矣。流僂則亂，鄙賤則爭。亂爭則兵弱城犯，敵國危之。如是，則百姓不安其處，不樂其鄉，不足其上矣。故禮樂廢而邪音起者，危削侮辱之本也。故先王貴禮樂而賤邪者。

에서 ‘예악’을 일곱 번 말하고, 예와 악을 함께 다루는 문장도 셋이 있다. 여전히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예악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점, 그리고 예와 악 각 개념에 대한 공자의 중시까지 고려한다면²²⁾ 예악 개념이 『논어』에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다.²³⁾ 그리고 그 뜻은 예라는 의례 형식과 이러한 형식을 구성하는 악에 가깝다.²⁴⁾ 따라서 예악은 각각의 고유한 역할로 구분되기보다는 유사성이 짙다. 즉, 악은 예, 즉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에 부속된 개념에 가깝다.

「악론」은 악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여 『논어』에 없는 새로운 해석을 악에 더하지만²⁵⁾ 예악의 어법은 『논어』와 비슷한 것 같다. 위에서

- 21) 『좌전』 장공 27년: 晉侯將伐虢. 士蔭曰, “不可. 虢公驕, 若驟得勝於我, 必棄其民. 無衆而後伐之, 欲禦我, 誰與? 夫禮樂慈愛, 戰所畜也. 夫民, 讓事樂和愛親哀喪, 而後可用也. 虢弗畜也, 亟戰, 將饑.” 희공 27년: 趙衰曰, “卻縠可. 臣亟聞其言矣, 說禮樂, 而敦詩書. 詩書, 義之府也, 禮樂, 德之則也, 德義, 利之本也.” 『주례』에도 예악이 네 번 나온다. 六藝에 속하는 경우 외에는 예악이 단독으로 나오는데 모두 『논어』의 용례와 비슷하게 의례와 관련성이 짙다. 예악이 천지와 함께 서술되기도 하여 『주례』를 『논어』보다 앞선 시기의 시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논어』 이전 예악 용례에 『주례』를 고려하지 않았다.
- 22) 『논어』에서 예와 악이 따로 언급될 때는 예악이 함께 언급될 때 예악의 뜻, 즉, 의례와 이를 구성하는 악이란 뜻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1의 克己復禮나 8.2에서 예는 행동을 적절히 균형 잡아 주어 공동체에서 바람직하게 처신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규범에 가깝고, 노래에 화답하고 韶樂에 매료되는 공자를 서술한 7.31과 7.13에서 악은 유희나 심미 체험의 대상에 가깝다. 비록 예와 악의 뜻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각 개념에 대한 공자의 관심은 예악 개념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 23) 『논어』에 이르러 예악 개념이 중요성을 얻은 것에 대해, 이상은은 『좌전』에서 예악이 하나의 개념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지만 아직 맹아 상태이고, 예악 개념은 공자가 정립했다고 주장한다. 이상은, 「예악 사상의 형성과 본질적 이념」, 43-44쪽.
- 24) 『논어』에서 예악이 함께 나오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3.3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17.11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鐘鼓云乎哉?” 14.12 文之以禮樂. 11.24 如其禮樂, 以俟君子. 13.3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16.2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17.19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11.1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如用之, 則吾從先進. 여기에서 예악을 모두 국가 문물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 『논어』의 예악을 본문과 같이 풀었다. 이러한 뜻에 더하여 3.3, 17.11, 14.12는 예악의 형식성이 仁이라는 내적 바탕을 지녀야 함을 지적한다. 11.1에서 예악의 뜻이 모호한데, “먼저 예악을 익히고 관직을 받은 자, 관직을 받은 후 예악을 익힌 자”라는 양백준 (1909-1992)의 해석을 참고하여 이 역시 국가 제도로 이해했다. 楊伯峻, 『論語譯注』, 109쪽.

「악론」은 올바른 악과 그렇지 않은 악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이러한 도덕적 영향력은 의례를 구성하는 악에 새로운 해석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례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악을 통해 더 고양되는 점을 생각할 때 「악론」에서 악에 행동 변화 효과를 부여한 것은 의례에 놓인 악의 기능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악론」 이전에 악의 기능이 의례라는 공간에 크게 의존적이었다면 「악론」은 소리가 지닌 도덕성과 체내기가 지닌 도덕성이 공명을 일으킨다는 입장에서²⁶⁾ 악에 더 직접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악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지만 이 악은 여전히 예악으로 언급돼도 자연스러운 어법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어법은 앞서 말한 「악기」에 나타난 예와 대비 구도에 놓인 악의 성격이 「악론」에서는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악기」는 예와 행동, 악과 감정이란 구도 아래 예악을 대비 관계로 본다. 하지만 「악론」은 의례를 구성하는 악, 즉 예에 부속된 악이란 시각에서 악의 영향력을 주로 행동 차원에서 서술한다. 따라서 「악론」에서 악의 특징적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 「악기」에 수용되지 않은 것은 예의 기능과 대비되는 성격이 약한 탓일 수 있다. 앞서 「악론」 머리부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악기」 후반부에 실리지만 한 부분이 탈락한다고 했는데, 이 탈락 부분도 악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지닌다.²⁷⁾ 이 역시 「악기」가 악의 영향권을 행동에까지 확대해 서술하는 것을 꺼렸으리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악은 인간 내면과 갖는 관련성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이를 다음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겠다.

-
- 25) 『논어』에서 올바른 형식을 지닌 악이 틀 잡힌 통치 체계의 일면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이러한 악이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해 백성을 바르게 이끈다는 시각은 유효하다고 보기 힘들다. 구체적 내용은 조정은, 『『논어』의 음악론: 음악의 교화 작용과 상보적 예악 개념에 대한 검토』, 42-48쪽 참고.
- 26) 이 글 III.3에 인용한 ㉠에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 있다. 소리와 기의 윤리적 공명에 대해서는 조정은, 「육파광 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자』와 『여씨춘추』의 음악론」, 185-189쪽 참고.
- 27) 탈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악론」 故樂者, 出所以征誅也, 入所以揖讓也. 征誅揖讓, 其義一也. 出所以征誅, 則莫不聽從, 入所以揖讓, 則莫不從服.

2. 악과 감정의 관련성 중시

이제 분석할 400여 자에 이르는 「악론」 부분과 950여 자로 늘어나는 「악기」의 상응 부분은 큰 흐름은 유사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다. 이 부분은 「악론」에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논의의 편의상 셋으로 나누어 우선 악과 감정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이 절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부분은 악 제정자에 초점을 맞춰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악기」에서도 하나로 이어지지만 확장되는 내용 중 일부는 직접 인용하지 않고 생략 표시로 대신했다.

「악론」 {㉒ 악은 성인이 즐기신 것으로 백성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을 깊게 감동시켜서 풍조와 습속을 바꾸기 쉽다. 선왕이 예악으로 이끌어 백성이 화목했다.} {㉓ 백성에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향이²⁸⁾ 있는데,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대응이 없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께서 이런 혼란을 싫어하셔서 행동 양식을 정비하고, 악을 바로 잡아 천하가 따랐다.} {㉔ 그러므로 상복과 곡소리는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행렬에서 노래하면 사람 마음이 아파진다. 요염한 용모와 정나라 위나라의 음은 사람 마음을 음란하게 하고, 예복과 예모를 갖춰 소와 무를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 마음이 장중해진다.} {㉕ 그러므로 군자는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눈으로 여색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는 나쁜 말을 내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군자는 신중히 한다.}²⁹⁾

「악기」 {㉒ 악은 성인이 즐기신 것으로 백성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을 깊게 감동시켜서 풍조와 습속을 바꾼다. 따라서 선왕은 그 가르침을 드러내셨다.}³⁰⁾ {㉓ 백성은 혈기, 마음, 지각 능력을 지니지만 희로애락은

28) 情을 ‘성향’으로 풀 것인 「악기」 ㉒에서 情을 감정으로 풀 것과 다른 풀이다. 그레이엄 (1919-1991)은 『순자』와 『예기』는 실정을 뜻하던 情에 새로운 뜻 즉, 실정을 인간 성향에 한정시킨 감정이라는 뜻을 더한다고 말한다. Graham, “The Background of the Mencian Theory of Human Nature”, p. 263. 好惡之情에서 情은 감정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실정이 적합하다고 여겨 호오하기 마련인 성향으로 풀었다.

29) 「악론」 {㉒樂者，聖人之所樂也，而可以善民心，其感人深，其移風易俗易，先王導之以禮樂而民和睦。} {㉓夫民有好惡之情而無喜怒之應，則亂。先王惡其亂也，故脩其行，正其樂，而天下順焉。} {㉔故齊衰之服，哭泣之聲，使入之心悲。帶甲嬰冑，歌於行伍，使人之心傷，姚冶之容，鄭衛之音，使入之心淫，紳端章甫，舞韶歌武，使入之心莊。} {㉕故君子耳不聽淫聲，目不視女色，口不出惡言。此三者，君子慎之。}

30) 「악기」의 ㉒는 「악기」를 구성하는 열한 편 중 넷째 편인 <악시>의 마지막 문장이 되

일정하지 않아서 사물에 응해 느끼어 일어나면서 움직인 뒤에야 마음의 작용이³¹⁾ 드러난다.} {㉔ [군주의] 뜻이 미약하면, 메마르고 잦아드는 음이 생겨나고, 백성은 시름겹고 걱정하게 된다. [군주가] 관대하고 느긋하면, [선율이] 풍부하고 [형식이] 간결한 음이 생겨나고, 백성은 편안하고 즐겁게 된다. [군주가] 사납고 엄하면, 격앙되고 세찬 음이 생겨나고, 백성은 강하고 굳세게 된다. [군주가] 청렴하고 끈고 굳고 바르면, 장엄하고 정성스런 음이 생겨나고, 백성들은 엄숙하고 공경하게 된다. [군주가] 너그럽고 여유롭고 원만하면,³²⁾ 순하게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진행되는 음이 생겨나고, 백성은 자애로워진다. [군주가] 방종하고 사특하고 산만하면, 지나치게 길고 넘치는 음이 생겨나고,³³⁾ 백성은 음란해진다.} {㉕ 이 때문에 선왕은 감정과 [감정을 일으키는] 바탕에³⁴⁾ 근본을 두고 도수로 헤아리고 예의 마땅함으로 마름질하셨다.} ³⁵⁾ [...] ³⁶⁾

어서 「악기」를 편집할 때 ㉔ 는 이후 내용과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이 크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악론」에서 ㉕ 는 새로운 논의의 서두로 과도 무방할 만큼 이후 내용과 연속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31)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경로”라는 『한어대사전』의 뜻을 참고하여 외물을 감지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心術을 풀었다. 『한어대사전』 7권, 383쪽. 감정이 생기므로써 감정을 일으킨 마음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 32) ‘원만하다’는 肉好를 풀 것이다. 둥근 옥의 가운데 구멍을 好, 바깥 돌레를 肉라고 하는데, 孫希旦(1736-1784)은 음이 원만하고 윤택한 것을 비유한다고 말한다. 『한어대사전』 8권, 1061쪽; 손희단, 『예기집해』, 999쪽. 이 글에서는 군자의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풀었다.
- 33) ‘너무 길고 넘친다’는 狄成滌濫을 풀 것이다. 陳澧(1260-1341)는 狄이 遯과 같아서 遠을 뜻하며, 成은 악곡을 한 번 마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狄成은 한 악곡이 너무 길다는 뜻이다. 滌은 洗를 뜻하여 마치 물이 사물을 씻을 때 넘쳐흘러 경계가 없는 것과 같다. 『예기집해』, 999쪽.
- 34) 희로애락의 감정을 情,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신체의 바탕인 血氣心知를 性으로 이해했다.
- 35) 「악기」 {㉔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 {㉕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㉖ 是故志微嗶殺之音作, 而民思憂. 擘譜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樂. 粗厲猛起奮末廣蕩之音作, 而民剛毅. 廉直勁正莊誠之音作, 而民肅敬. 寬裕肉好順成和動之音作, 而民慈愛. 流辟邪散狄成滌濫之音作, 而民淫亂.} {㉗ 是故先王本之情性, 稽之度數, 制之禮義.}
- 36) 인용을 생략한 부분은 약 180자로 악 제정 방식 등을 서술한다. 『여씨춘추』 「음초」와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데, 「음초」가 악이 현·불초, 군자·소인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서술하는 데 반해, 「악기」는 친소, 귀천 등의 이치가 악에 나타나도록 했다고 하여 악 제정의 관점을 지닌다.

「악론」은 ㉔에서 악의 효용을 서술한 후 선왕의 악이 아닌 선왕의 예약을 말한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악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지만 악은 여전히 예에 부속된 개념에 머무는 어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법에 부합하듯 ㉕에서 상례 등 의례가 악이 놓이는 상황으로 제시된다. 반면 「악기」는 ㉔에서 예약이란 용어를 빼고, 선왕이 그 가르침, 즉 악의 가르침을 드러냈다고 하여 악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가닥을 잡는다. 그리고 ㉕에서 의례 맥락은 사라지고 내면 성향과 음의 성격이 바로 연결된다. 이때 내면 성향이 감정에만 머물기보다는 행위로 이어지는 성격이 커서 「악기」가 내면에 대한 악의 영향력이 외면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가 행동을 통해 마음에 영향을 주더라도 방점은 행동에 있는 것처럼, 악도 마음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도 방점은 마음에 있다.

「악론」의 ㉕는 악을 포함하여 외부 자극을 상황에 맞는 형태로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어서 악만의 독특한 효과를 설명할 바탕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악론」에 따르면 백성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향을 지닌다. 그런데 이 좋아하고 싫어함에 대응하여 생기는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이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 좋아하는 것에는 기쁨 부류의 감정이 응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노여움 부류의 감정이 응할 텐데, 이러한 대응이 없다는 것은 우선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대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자극과 반응이 없는 것이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색하다.

만약 應을 마땅함 즉 마땅한 대응으로 해석한다면 외부 자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상황에 맞게 감정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엄해야 하는 자리에서 경박한 악이 연주된다면 악이 유발하는 감정은 상황과 맞지 않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악뿐 아니라 의복이나 행동 양식 등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부적절한 감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의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선왕은 상황에 맞도록 행동 양식을 정비하고, 악을 바로잡았다.

악은 사람을 깊게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자극과 차별적이다. 하지만 ㉕부터 「악론」의 논의는 주로 의례를 구성하는 자극 일반을 향해 있어서 백성 마음을 선하게 한다는 악 특유의 마음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기에 부족

하다. 예가 포괄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악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내 논의는 다시 예가 포괄하는 악에 갇혀 버렸다.

반면 「악기」는 ㉠에서 예악을 뺀 뿐 아니라 ㉡에서 행동 양식을 말하지도 않아서 초점이 오로지 악을 향한다. ㉢에서 중심은 마음의 작용에 있다. 「악기」는 호오와 희로애락의 대응을 문제 삼는 대신 희로애락에 일정함이 없다고 지적한다. 즉, 혈기, 마음, 지각 능력 같은 감정을 일으킬 바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정이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 자극이 있을 때에라야 감정이 일어난다는 논의여서, 상황에 적합한 감정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결과 상황에 맞게 외부 자극을 재단할 필요성도 약화된다.

외부 자극이 주어져야 비로소 감정이 생기는데 많은 자극 중 「악기」는 ㉣에서 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음 앞에 나오는 긴 수식어를 모두 음의 속성으로 풀기도 하지만 앞부분은 군주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보기도 한다.³⁷⁾ 후자의 해석을 따른다면 군주의 마음은 음에 투영되어 백성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악의 영향력에서 군주의 마음이 중요해진다. 이 경우 마음은 희로애락의 감정보다는 수양이 필요한 내적 성향에 가까워진다.

외부 자극의 적합한 형태를 중시하는 「악론」과 음에 실리는 군주의 내적 성향을 중시하는 「악기」는 ㉤에서 다른 각도로 논의를 맺는다. 즉, 「악론」은 소리와 여색 등을 예로 들어 올바른 외부 자극을 선별하는 군자를 말하고, 「악기」는 감정과 감정을 일으키는 바탕, 도수,³⁸⁾ 예의 마땅함[禮義]³⁹⁾

37) 정현(127-200)과 공영달(574-648)은 앞부분의 수식어가 군주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본다. 하지만 이후 시대의 주석 및 오늘날의 해석에서는 대부분 모든 수식어를 음의 성격으로 풀다. 이는 음의 성격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군주의 성향과 음의 성격을 수식하는 말에 구분이 모호해진 것을 보여 준다. 조정은, 『『여씨춘추』와 『예기』 「악기」에서 “음악은 천지의 조화”가 갖는 의미 비교』, 『철학사상』, 17-18쪽.

38) 度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참고로 진호는 12율 삼분손익법으로 풀다. 『예기집해』, 1001쪽.

39) 「악기」에서 禮義는 “예의가 확립되면 귀천이 나누어진다. 禮義立則貴賤等矣.”라고 하여 신분 등급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나온다. 그리고 주석36에서도 언급했듯 인용을 생략한 부분에는 “친소, 귀천, 장유, 남녀의 이치가 모두 악에 나타나도록 했다. 使親疏貴賤長幼男女之理皆形見於樂.”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禮義를 禮의 마땅함으로 풀고 이를 기준으로 한 친소와 귀천 등의 구분이 악에 형상화되도록 했다고 이해했다.

을 살펴 악을 제정하는 선왕을 말한다.

「악론」에 따르면 기쁨과 노여움이 상황에 적합하도록 군자는 외부 자극을 선별한다. 이때 군자는 한편으로는 백성과 마찬가지로 악 수용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과 대비되어 올바른 자극인 선왕의 악을 선별해 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악 선별이 관건이 되면 악이 가진 행동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올바른 악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양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양에 대해 「악론」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백성과 대비되는 군자가 여전히 악 수용자에 머물면서 「악론」 논지에서 벗어난 논점이 불쑥 끼어들게 된 셈이다.

「악기」는 백성과 대비되는 존재로 악 수용자가 아닌 악 제정자로서 군주를 말하여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감정과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에 근본을 두어 악을 제정해야 하지만 악이 예·정령·형벌과 함께 국가 제도를 이루는 만큼 도수와 예에 맞는 기준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전자에 놓아야 할 것 같다. 예에 맞는 형식도 갖춰야 하지만 예에 부속된 위치에서 벗어나 예의 외형성과 대비되는 고유한 성격, 즉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지금까지 살펴본 「악기」의 특징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악 제정자의 내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악기」는 성인이 즐거워한 악, 백성 마음을 선하게 하는 악이라는 처음 주장에 충실하게 내면을 끝까지 잡고 간다. 군주의 내면 상태는 군주가 제정하는 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이러한 악은 백성에게 동일 계열의 상태를 유발한다. 따라서 군주는 악에 반응해 감정을 일으키는 인간의 바탕을 숙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서 통치에 도움이 되는 내적 성향을 백성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외적 기준도 참고하여 악을 제정한다. 이처럼 「악기」는 악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어 악이 백성 마음을 선하게 하는 이유를 인간 내면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악론」이 주장하는 악이 지닌 행동 변화 효과를 「악기」가 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III.1에서 지적했다. III.2를 통해 「악기」는 다른 의례 구성 요소와 별다른 차별성 없이 상황에 맞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 악을 인식하는 대신, 악과 관련하여 좁게는 감정, 넓게는 내적 성향을 주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악기」에서는 의례 맥락성이 약화되면서 악의 형식 대신 마 음에 미치는 효과가 중심에 놓인다. 이 같은 초점의 이동과 함께 악 제정자 의 내면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음을 꾸미는 여 러 수식어 중 일부를 군주 성향에 대한 묘사로 본 주석에 의존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악론」에 비해 「악기」가 악 제정자의 내면을 강 조하는 측면을 다음 분석 대상에서 살펴봄으로써 설득력을 더하고자 한다.

3. 악이 지닌 영향력의 근원인 악 제정자

이번에 살펴볼 부분에서 「악기」는 군자를 악 제정자로, 「악론」은 악 수 용자로 제시한다. 악 제정자로서 군자는 악이 지닌 영향력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천지를 향한 악의 영향력도 거슬러 가면 군자에 말미암는다.

{㉞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자극하면 거스르는 기가 옹하고, 거스르는 기가 상을 이루면 혼란이 생긴다. 올바른 소리가 사람을 자극하면 따르는 기가 옹하고, 따르는 기가 상을 이루면 다스림이 생긴다. 노래와 화답에 응함이 있고, 선악이 서로 [각자]40) 상을 이루니 군자는 거취를 신중히 한다.} {㉟ 군자는 종과 북으로 뜻을 인도하고, 금과 슬로 마음을 즐겁게 한다. 방 패와 도끼를 [들고] 움직이고, 깃털과 꼬리털로 [대를] 꾸미고, 경과 관악기 의 [연주가] 따른다.} {㉡ 따라서 [악의] 맑고 밝음은 하늘을 상징하고, 광 대함은 땅을 상징하며, 몸을 앞뒤로 젖히고 빙빙 도는 것은 사계절과 흡사 하다.}41)

{㉞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자극하면 거스르는 기가 옹하고, 거스르는 기가 상을 이루면 음란한 악이 일어난다. 올바른 소리가 사람을 자극하면 따르는 기가 옹하고, 따르는 기가 상을 이루면 조화로운 악이 일어난다. 노래와 화 답에 응함이 있고, 어그러지고 사벽하고 굽고 곧은 것이 자자 그 분수로 돌 아가니 만물의 이치가 각각 부류를 따라 서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군자는

40) 善惡이 상호 의존 개념이라는 뜻을 피하기 위해 ‘각자’를 추가했다. ㉞에서는 같은 부 류끼리 응함이 주제라 善과 惡이 각 부류대로 모인다는 뜻이 적절해 보인다.

41) 「악론」 {㉞ 凡姦聲感人而逆氣應之，逆氣成象而亂生焉。正聲感人而順氣應之，順氣成象而治生焉。唱和有應，善惡相象，故君子慎其所去就也。} {㉟ 君子以鐘鼓道志，以琴瑟樂心。動以干戚，飾以羽旄，從以磐管。} {㉡ 故其清明象天，其廣大象地，其俯仰周旋有似於四時。}

감정을 바른 곳으로 돌이켜 그 뜻을 조화시키고, 부류를 구분하여 행실을 이룬다.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안색이 귀와 눈의 밝음에 머물지 않고, 음란한 악과 어긋난 예가 마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며, 나태하고 사벽한 기가 신체에 자리 잡지 않는다. 그리하면 이목구비, 마음, 지각 능력, 온갖 기관이 모두 순조로움과 바름을 따라 마땅하게 활동한다.} {㉑ 이런 뒤에 목소리를 내고, 금과 슬로 문채를 내며, 방패와 도끼를 [들고] 움직이며, 깃털과 꼬리털로 [대를] 꾸미며 소 및 관악기의 [연주가] 이어져서 지극한 덕이 광채를 떨치고, 사방의 조화로운 기를 움직여 만물의 이치를 드러낸다.} {㉒ 그러므로 [악의] 맑고 밝음은 하늘을 상징하고, 광대함은 땅을 상징하며, 끝맺음과 시작은 사계절을 상징하고, 빙빙 도는 것은 비바람을 상징한다. 오색이 문채를 이루어 어지럽지 않고, 팔풍이 율을 따라서 어긋나지 않으며, 여러 척도가 기준을 얻어서 일정함이 있으니 크고 작음이 서로 이뤄지며, 끝맺음과 시작이 서로 낱고, 노래와 화답 및 높고 낮은 소리가 번갈아서로 척도가 된다.}42)

㉑에서 「악론」은 ‘소리→기→치란’으로 이어지지만 「악기」는 ‘소리→기→악’으로 이어진다. 악이 백성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악론」에서는 소리가 참여하는 응함의 결과로 치란을 말하지만, 「악기」는 치란 대신 악을 말하면서 악 제정자의 역할을 논의에 끌어온다. 소리와 기가 응해 나오는 악은 군자가 제정하는 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화로운 악이나 여부는 올바른 소리만 기에 응하도록 하는 군자의 수양에 달려 있다. 즉, 「악기」에서 소리와 기의 응함은 악 제정자 내면에서 일어난다. 올바른 소리가 간여하는 반응이라면 온갖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며 내면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내면 바탕이 마련된 상태에서 악을 제정해야 한다.

㉒에서 「악기」는 노랫소리, 악대 소리, 무용을 포함하는 악을 말하고 이를 사계절 및 만물과 연결시킨다. 처음 「악기」는 음을 매개로 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한 후 역으로 악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악 제

42) 「악기」 {㉑ 凡姦聲感人而逆氣應之，逆氣成象而淫樂興焉。正聲感人而順氣應之，順氣成象而和樂興焉。倡和有應，回邪曲直，各歸其分，而萬物之理各以類相動也。是故君子反情以和其志，比類以成其行。姦聲亂色，不留聰明，淫樂慝禮，不接心術，惰慢邪辟之氣不設於身體，使耳目鼻口心知百體皆由順正以行其義。} {㉒ 然後發以聲音，而文以琴瑟，動以干戚，飾以羽旄，從以籥管，奮至德之光，動四氣之和，以著萬物之理。} {㉓ 是故清明象天，廣大象地，終始象四時，周還象風雨，五色成文而不亂，八風從律而不姦，百度得數而有常，小大相成，終始相生，倡和清濁，迭相爲經。}

정자가 논의에 들어오면서 이 양 방향의 관계는 ‘악 제정자의 마음→음→악 수용자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군자가 악을 매개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논의를 구성한다. 음만 가지고는 영향력이 인간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악기」는 악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악대와 무용을 통해 자연계와 유비 관계를 세우며 군자의 영향력이 자연계까지 확장되는 논의와 연결점을 찾는다.⁴³⁾ ㉔에서 악이 자연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악 제정자가 부각되지 않는 「악론」에서는 악과 자연계의 유비가 단순 유비에 그치지만, 「악기」에서는 악 제정자의 영향을 인간계에서 자연계로 확대하는 주장으로 나갈 수 있다. 악 제정자의 역할은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악론」 {㉔ 따라서 악을 행하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행실이 이루어지고, 이목이 밝아지고, 혈기가 조화롭고 균형 잡히며, 풍조와 습속이 바뀌어 천하가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움과 선함을 서로 즐긴다. 따라서 “악은 즐거움”이라고 한다. 군자는 도를 얻는 것을 즐기고, 소인은 욕망을 채우는 것을 즐긴다. 도로써 욕망을 절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욕망으로써 도를 잊어버리면 미혹되어 즐겁지 않다. 그러므로 악은 즐거움을 이끄는 것이다. 쇠·돌·실·대나무[로 만든 악기]는 덕을 이끄는 것이다. 악을 행하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향한다. 그러므로 악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성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목자는 이를 비난했다.} {㉔ 또한 악은 조화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예는 이치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악은 함하여 같게 하고, 예는 구별하여 다르게 한다. 예악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 마음을 다스린다. 근본을 파고들어 변화를 다하는 것은 악의 실정이고, 참됨을 드러내고 거짓을 없애는 것은 예의 법칙이다.}44)

「악기」 {㉔ 따라서 악을 행하면 사물의 분류와 순서가⁴⁵⁾ 분명해지고, 이목

43) “故聖人作樂以應天，制禮以配地。禮樂明備，天地官矣。”에 나타나 있듯 「악기」에서 성인은 예악을 제정하여 천지와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로 서술된다. 나중에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서술은 예악의 대비가 천지 차원으로 확대되며 성인의 영향력도 함께 확대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음을 매개로 악 제정자를 악이 지닌 영향력의 근원으로 삼은 점, 악과 자연계를 유비시킨 점은 이러한 시각과 연결될 수 있다.

44) {㉔故樂行而志清，禮脩而行成，耳目聰明，血氣和平，移風易俗，天下皆寧，美善相樂。故曰，樂者，樂也。君子樂得其道，小人樂得其欲。以道制欲，則樂而不亂，以欲忘道，則惑而不樂。故樂者，所以道樂也。金石絲竹，所以道德也。樂行而民鄉方矣。故樂者，治人之盛者也，而墨子非之。} {㉔且樂也者，和之不可變者也，禮也者，理之不可易者也。樂合同，禮別異。禮樂之統，管乎人心矣。窮本極變，樂之情也，著誠去僞，禮之經也。}

이 밝아지고, 혈기가 조화롭고 균형 잡히며, 풍조와 습속이 바뀌어 천하가 모두 편안하게 된다. 따라서 “악은 즐거움”이라고 한다. 군자는 도를 얻는 것을 즐기고, 소인은 욕망을 채우는 것을 즐긴다. 도로써 욕망을 절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욕망으로써 도를 잊어버린다면 미혹되어 즐겁지 않다. 그러므로 군자는 감정을 돌이켜 그 뜻을 조화시키고, 악을 널리 [행해] 가르침을 이룬다. 악을 행하면 백성이 올바른 길로⁴⁶⁾ 향하니 덕을 살필 수 있다.} [...] {㉔ 악은 감정/실정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예는 이치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악은 통합하여 같게 하고, 예는 구분하여 다르게 한다. 예악의 설은 사람의 감정/실정을 아우른다.⁴⁷⁾ 근본을 과고들어 변화를 아는 것은 악의 실정이고,⁴⁸⁾ 참됨을 드러내고 거짓을 없애는 것은 예의 법칙이다.}⁴⁹⁾

「악론」에서 혼치않은 예악의 대비가 ㉔에 나타나는데,⁵⁰⁾ 악과 예는 「악기」에서 그렇듯 각각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는 ㉔에 서술된 악의 맑음과 무용 동작을 악이 이끄는 뜻의 맑음과 예가 이끄는 행동으로 연결 지은 것 같다. 뜻을 마음의 지향성으로 보면 행동과 연결되는 성격이 크고, 악에 관한 내용에서 예가 불쑥 등장하여 악을 예에 부속된 개념으로 보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악론」의 다른 부분보다는 예악의 대

-
- 45) 倫을 倫類로 풀 손희단의 주석과 ㉔와 이어지는 맥락을 근거로 倫을 ‘사물의 분류와 순서’로 풀었다. 『예기집해』, 1005쪽.
- 46) 方을 도로 풀 정현의 주석을 참고하여 方을 ‘올바른 길’로 풀이했다. 『禮記正義』, 1111쪽.
- 47) 정현은 管을 包(감싸다)로 풀다. 『예기정의』, 1116쪽. 이 부분을 인용한 『사기』 「악서」 예는 貫으로 되어 있다. 司馬遷, 『史記』, 1202쪽. 이를 참고해 예악을 사람의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을 사람의 실정을 아우르거나 꿰뚫는 것으로 봤다.
- 48) 손희단은 근본[本]이 가리키는 것은 악이 마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점이고, 변화[變]는 「악기」와 「악론」에 모두 나오는 구절인 “聲音動靜, 性術之變”을 가리킨다고 한다. 『예기집해』, 1010쪽.
- 49) {㉔ 故樂行而倫清, 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 天下皆寧. 故曰, “樂者, 樂也.” 君子樂得其道, 小人樂得其欲. 以道制欲, 則樂而不亂. 以欲忘道, 則惑而不樂. 是故君子反情以和其志, 廣樂以成其教, 樂行而民鄉方. 可以觀德矣.} [...] {㉔ 樂也者, 情之不可變者也. 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 樂統同, 禮辨異. 禮樂之說, 管乎人情矣. 窮本知變, 樂之情也. 著誠去僞, 禮之經也.}
- 50) 예악의 대비가 「악기」에 비해 「악론」에서 약하기는 해도 「악론」은 예악의 대비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정병섭은 “악을 예와 분리시키고 예의 기능과는 다른 악만의 기능을 서술하기 시작한 것은 『순자』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하는데, 적절한 지적이다. 정병섭, 「순자와 선진 유가 악론의 성립에 대한 연구」, 373쪽.

비성이 질다.

「악기」는 예에 관한 구절을 없애고 ㉔에 나온 악에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 같은 음악적 요소가 담긴다는 서술을 이어서 악이 사물을 분명히 구분 짓는다고 서술한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예를 등장시키는 대신 악에 집중하는 논의를 펼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서로 즐긴다는 다소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⁵¹⁾ 「악기」에서 탈락한다.⁵²⁾

「악론」에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힘은 악에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㉕에 나온 소리와 기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힘의 근원은 거슬러 가면 선왕에 있겠지만 「악론」에서 악의 영향력을 선왕 혹은 군주의 내면과 연결시키는 서술은 드물다. 악이 지닌 도덕적 힘은 의례에서 연주되는 선왕의 악이 지닌 도덕적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이 힘의 근원을 선왕까지 거슬러 가기보다는 우선 소리의 도덕성에서 찾는다. 이에 반해 「악기」에서는 악 제정자의 덕을 악이 지닌 힘의 근원으로 삼는 관점이 뚜렷해진다. 백성이 올바른 길로 향했을 때 최종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㉖ 마지막에 나와 있듯 군자의 덕이기 때문이다. 「악기」는 ㉗와 ㉘ 사이에 약 260자에 걸쳐 내용을 추가하는데, “악은 덕의 화려함”이고, “악이 끝나면 덕이 높아지고”, “악은 덕을 드러낸 것”이라고⁵³⁾ 하는 등 악과 덕의 상관성이 두드러진다.

㉘는 예악의 대비성이 강한 문단으로 역시 「악론」의 다른 예악 용례와 이질적이다. 「악기」에서 몇몇 글자가 유사한 뜻을 가진 다른 글자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꾼 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⁵⁴⁾ 이 글의

51) “美善相樂”이 “莫善於樂”으로 된 관본도 있는데, 王念孫(1744-1832)은 『효경』의 “移風易俗, 莫善於樂”을 따른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면 즐거움을 말하는 이후 내용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왕염손은 “美善相樂”이어야 한다고 본다. 『荀子集解』, 382쪽. 美善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논어』 3.25에서 공자가 소악과 무악을 평가하며 말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52) “美善相樂”이 악이 지닌 美善이라는 성격을 즐기는 것으로 본다면 빼는 것이 논의 전개에 더 자연스럽다. 통치 수단으로 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며 악의 효과를 신체, 마음, 천하로 점점 확대하여 서술한 후 악을 즐긴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53) 「악기」 樂者德之華也; 樂終而德尊; 樂章德.

54) 이상은은 「계사」의 “窮神知化”에 영향 받아 “窮本知變”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한다. 이상은,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Ⅰ)」, 117쪽. 하지만 이러한 글자 차이가 어떤

주장과 관련하여 지적할 만한 차이는 「악기」가 和 대신 情을 쓰며 악과 감정 혹은 실정의 상관성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 구성 요소 중 음에는 악 제정자의 감정이 반영되고, 악 제정자는 악대와 무용에 천지의 실정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생긴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예악은 천지의 실정을 본뜨고 신명의 덕에 통달한다”라고⁵⁵⁾ 하고, “대인이 예악을 거행하면 천지가 밝아진다”라고⁵⁶⁾ 하여 악 제정자의 역할을 지적할 여지를 넓혀 준다. 악이 천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은 『국어』 「주어 하」와 『여씨춘추』 「대악」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악 제정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악기」에서 비로소 뚜렷해진다.⁵⁷⁾

IV. 결론

이 글은 「악기」 도입부 및 「악론」에서 예악이 나오는 부분과 「악기」의 상응 부분을 분석하여 악에 관한 「악기」의 특징적 시각을 「악론」과 비교하여 다음 세 가지로 지적했다. 「악기」는 악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점을 주목하면서 악의 영향력을 주로 행동 차원에서 말하는 「악론」과 다른 입장에

사상적 차이를 보여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

55) 「악기」 禮樂 俎天地之情，達神明之德.

56) 「악기」 是故大人舉禮樂，則天地將爲昭焉.

57) 『여씨춘추』에서도 악 제정자가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푸에는 「대악」을 분석하면서 악은 자연계의 생성 과정에 근거를 둔 것이면서도 인간이 자연계를 조절하는 데에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간은 악을 제정함으로써 자연계의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Michael J. Puett, *To Become a God*, pp. 174-175. 이 해석과 유사하게 에리카 브린들리도 「대악」에 대해 통치자가 악에 관여함으로써 도를 따르는 정신 상태에 이르고, 이를 통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 Erica Brindley, *Music, Cosmology, and the Politics of Harmony in Early China*, pp. 33-34. 이들의 해석이 유효하기는 해도 「대악」을 제외하고 음악을 다루는 『여씨춘추』의 다른 편에 악 제정자가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거의 없어서 『여씨춘추』에서 이러한 시각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악기」는 국가 제도 중 하나로 악을 보는 시각이 강한 만큼 악 제정자가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악이 예와 대비되어 자연계에 유비되는 서술도 많기 때문에 악 제정자의 자연계에 대한 영향력을 옹호할 여지가 많다.

선다. 「악기」에서 악의 영향력이 감정을 향하며 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와 대비성이 짙어지면서 「악론」에서만 해도 예에 부속된 개념에 가깝던 악은 예의 대등한 짝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악과 감정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악론」에서 잘 안 드러났던 악 제정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예악은 「악론」에서 의례와 의례 구성 요소로서 악이란 개념에 가깝다. 「악기」에서 예는 의례 맥락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행동 양식에 가깝고, 악은 의례 부속성이 약해지고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독립적 기능이 강화된다. 「악론」은 의례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고양시키는 악이라는 시각을 잇는 한편, 소리와 기의 대응을 통해 행동 유발 효과를 악에 직접 부여하는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의례에서 연주되는 악이란 개념에 가까운 만큼 「악론」에서는 악의 기능을 예와 대비의 관점에서 다루는 시각이 약하다. 이에 반해 「악기」는 음을 통해 악과 감정 사이 밀접성을 확보하며 악의 영향권을 내면에 한정시켜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결과 예의 외향성과 대비가 뚜렷해진다. 예악의 대비는 땅과 하늘, 수렴성과 발산성 등으로 확대되어 우주적 차원의 예악론으로 발전하는데, 자연계에 유비되는 악대와 무용까지 포함하는 악의 형식은 이러한 예악론을 구축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악론」에서 군자가 악 수용자에 머무는 것과 달리 「악기」에서는 악 제정자의 위치에 선다. 악과 감정의 밀접성은 악 제정자의 내면이 음에 반영되어 악 수용자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구성하면서 악 제정자의 덕이 「악기」에서 중요해진다. 감정의 표현물이 음이라고 하여 음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곧바로 확보되지는 않지만, 「악기」는 음을 매개로 악 제정자와 악 수용자의 내면을 연결함으로써 이를 확보한다. 음은 악의 일부 요소라 음이 지닌 감정 발생 효과만 가지고는 악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악기」는 악대와 무용까지 포함하는 전체 구성을 자연계에 유비시키며 악의 정체성을 세운다. 이러한 자연계의 유비는 악 제정자가 인간계를 넘어 자연계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논의를 구성할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 글은 「악기」가 악의 효과에서 감정을 주목하면서 예악의 대비와 악

제정자의 중요성을 이끌어 냈음을 주장했다. 예약의 대비는 천지 차원으로 확장된 논의에서 음양 이론 등과 결합하면서 예약의 구분과 조화 같은 상보성이 뚜렷해지고, 악 제정자의 중요성은 군주가 예약을 통해 천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악기」의 고유한 예약론이 전개되는 부분을 분석하면서 차후에 살펴보고자 한다.

투 고 일: 2015. 06. 30
심사완료일: 2015. 08. 03
계재확정일: 2015. 08. 05

조정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참고문헌

- 박낙규, 「고대 중국의 유가와 도가 악론의 기본 관점(상)」, 『낭만음악』 통권14호(1992): 69-93쪽; 「『순자: 악론』의 예술사상사적 의미」, 『동아문화』30집(1992): 245-263쪽.
- 이상은, 「순자 「악론」의 특징과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44집(2011): 213-235쪽; 「「악기」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Ⅰ)」, 『동양철학연구』5집(1984): 95-122쪽; 「예악 사상의 형성과 본질적 이념」, 『유교사상문화연구』34집(2008): 31-55쪽.
- 이수태, 『새번역 논어』, 서울: 바오출판사, 2014.
- 정병섭, 「순자와 선진 유가 악론의 성립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64집(2010): 349-382쪽.
- 정창수, 『예의 본질과 기능: 『예기』의 사회학적 서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조정은, 「『논어』의 음악론: 음악의 교화 작용과 상보적 예악 개념에 대한 검토」, 『유교사상문화연구』52집(2013): 33-58쪽; 「욕망[欲]과 기(氣)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자』와 『여씨춘추』의 음악론」, 『동양철학』40집(2013): 171-195쪽; 「『여씨춘추』와 『예기』 「악기」에서 “음악은 천지의 조화[和]가 갖는 의미 비교」, 『철학사상』43호(2012): 3-31쪽.
-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08.
- 孫希旦,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9.
-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2.
- 王夢鷗, 『禮記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4.
- 王先謙, 『荀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8.
-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胡適, 『中國古代哲學史』(『國學基本叢書』24),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Brindley, Erica Fox. *Music, Cosmology, and the Politics of Harmony in Early China*. Albany: SUNY Press, 2012.
- Graham, A.C. “The Background of the Mencian Theory of Human Nature”, *The Tsing Hua Journal of Chinese Studies*. 6, no.1-2 (1967): pp. 215-274.
- Puett, Michael J. *To Become a God: Cosmology, Sacrifice, and Self-Divinization in Early China*. Cambridge, Mass.: Published by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 Yenching Institute: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ABSTRACT

The Close Relation between Music and
Emotion in the “Yueji”, Engendering the
Contrast between Ritual and Music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er of Music

Jo, Jung-Eun

This paper argues that the “Yueji” chapter of the *Liji* pays attention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emotion, thereby establishing a contrast between ritual and music and revealing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er of music. In formulating this argument, I analyze the beginning part of the “Yueji”, and compare passages of the “Yuelun” where the concept of ‘ritual and music’ appears and their corresponding parts of the “Yueji”. Unlike the “Yuelun” that describes musical effect mainly focusing on behavioral changes, the “Yueji” discusses musical effect mostly in relation to emotion. As music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inner heart/mind in the “Yueji”, music is contrasted with ritual which guides exterior behavior. As a result, music becomes closer to the counterpart of ritual rather than a subordinate concept of ritual. This contrast goes even further to relate ‘ritual and music’ to ‘earth and sky’ and ‘convergence and divergence’. The whole musical performance, which includes not only singing but also various musical instruments and dance, can support this cosmic dimension of ‘ritual and music’ as the performance is believed to symbolize the

cosmic world. Another aspect that the close relation between music and emotion led to is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er of music. That is, the establisher of music is deemed to be the root of musical effect in that music affects people's heart/mind by conveying the establisher's inner disposition.

Keywords: “Yueji”, “Yuelun”, music, ritual, emotion, establisher of music